

글로벌인재 育成 밑거름 ‘알찬 틈새학교’

포천교육청, 알찬 틈새 학교 2차 캠프 실시

포천교육청은 8월10일부터 13일 까지 영북면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알찬틈새학교 1차 캠프(7.27~29)에 이은 2차 캠프를 운영했다.

관내 저소득층 자녀 및 일반 희망학생 300여명(초5, 6, 중1)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틈새학교2차 캠프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다.

운영프로그램은 로봇반, 디카반, 연극반, 가야금반, 스트리트댄스반, 연극반 등 15개 부서의 심화반과 관소리, 재미있는 과학실험, 종이건축물, 발명공작, 교육미술 등 10개 부서의 공통반으로 편성되어 진행됐다.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방안을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음악, 춤 등)의 전문가 초청 공연을 관람하게 하여, 이들에게 여러



포천교육청은 8월10일부터 13일까지 영북면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알찬틈새학교 2차 캠프를 운영했다.(사진은 학생들이 문화예술 체험행사로 북 연주를 하고 있다.)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환송사에서 시작으로 문을 연 이번 2차 캠프는 지난 1차 캠프에서 연마한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숙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캠프 마지막날에 관내 초, 중학교 관리자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전시(풍선아트, 발명공작, 디지털사

진 등) 및 공연(한국무용, 재저사이즈, 모듬북, 연극 등)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중에는 틈새 학교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2차 캠프 종료 후에도 그들 간의 지속적인 친교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화합과 친선을 다지는 의미의 현장학습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캠프에서 발명공작반을 담당한 포천 이곡초 전영모 교사(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학생 지도)는 “알찬 틈새학교 캠프를 통해 배우고 익힌 다양한 재능과 기술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들이 훗날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大 경영분석 종합평가 優秀大學

한국사학진흥재단 4년제 私立大 경영분석 결과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4년제 190개 사립대 경영상태를 분석한 종합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2005회계년도 재무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190개 대학 중 대진대학교를 포함하여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총18개 대학이다.

대학 재정상태의 건전성, 투자활동의 적극성, 재정활동 및 교육투자활동을 통한 성과창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대진대학교는 종합분석 및 재무분석 항목에서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이번 평가결과를 추후 사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에 활용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학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4년제 190개 사립대 경영상태를 분석한 종합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사진은 대진대학교 본관 전경)

참살이 체험학습 포천 환경지킴이 탄생

교육특화 사업인 자연친화 환경 참살이 체험학습 실시

경기도포천교육청(최길용 교육장)은 관내 초, 중학교 68명을 대상으로 참살이 자연 생태환경 조성 중립학교 외 환경 체험학습장 3곳에서 8월 8일부터 9일까지 교육특화 사업인 자연친화 환경 참살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고, 찾고, 대화하고, 만들고, 느끼는 체험활동이 되도록 <운담초 및 이곡초에 있는 자연 생태 탐사 > <광릉수목원의 자연친화 체험활동 > <소흘읍의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 등의 환경과 관계되는 활동을 했다.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인데도 식물과의 대화, 식물이를 바꾸기, 본 식물 이름 쓰기, 손수건 꽃물 만들기, 야생화 분갈이하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천으로 우리 꽃 만들기, 식물의 생태 탐사 등의 참살이 체험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느꼈다.

특히, 이곡초등학교에서의 살림살이 테마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 주었다.

강사로 참여한 이곡초등학교 경제인 교사는 “숲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자연 환경의 고마움을 알

게 해주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우리 학교에서도 실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환경 지킴이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별 환경 참살이 체험학습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학교별 환경 참살이 체험학습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이해하고 情 나누는 소중한 기회”

2007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체험 성료

5개국 100명 청소년 각국 문화체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2007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가 지난 14일을 끝으로 4박 5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3일 오후 6시에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환송식에는 박윤국 포천시교육장, 참가학생 및 인솔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환송식에서 각국 학생들은 자국 문화 발표회를 열어 각 나라의 춤과 노래를 뽑내기도 하고 각국 대표의 소감문 발표 등을 했으며 이어

행사결과 보고와 우수학생 표창장 및 수료증 수여식 등을 가졌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환송사에서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함께 살을 맞대고 호흡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포천시와의 인연을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중국, 태국, 벨라루스, 몰도바 등 5개국의 1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한국, 중국, 태국, 벨라루스, 몰도바 등 5개국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2007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가 8월14일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함께 공부해요 》

通論(통론) 32

樂共子曰民生於三이라 事之如一이니 父生之 하시고 師教之하시고 君이 食之하시나니 非父면 不生이요 非食이면 不長이요 非教면 不知니 生之族也라 故로 一사之하여 唯其所在에 則致死焉이라 報生以死하며 報賜以力이 人之道也니라.

낙공자왈 민생어삼 이라사지여일 이니부생지 하시고사교지 하시고 군이 식지하시나니 비부면 불생이요 비식이면 부장이요 비교면 부지이니 생지족야라 고로 일사지하여 유기소제 예죽지사언 이나라보생 이사 하며 보사이력 이 인지도야니라

낙공자(樂公子)진나라의 대부. 사지여일(事之如一) 아버지하고 임금과 스승을 동일하게 섬겨야한다. 군사지사는 기른다는 뜻.(唯오직유)

난공자가 말하기를 “백성은 세 군데에서 생명을 받으니 그 셋을 섬기기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아버지가 낳으시고 스승이 가르쳐 주시고 임금이 길러 주신다. 아버지가 아니면 몸이 생겨나지 못하고 길러 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셋은 사람에게 살아가도록 하는 공덕이 서로 비슷하다. 그런 까닭에 동일하게 섬겨야하니 오직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는 아버지에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임금에

게 스승을 섬김에 있어서는 스승에게 모두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생명의 은혜는 죽음으로써 보답하고 그밖에 내게 줌(賜)이 있는 이에게는 힘으로써 보답해야 한다 하였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삼고해할 글이 아닌가.



문의: 011-354-6485 양주승 본지 지문위원장

포천 ‘북 아트’ 여름 캠프 큰 만족

포천교육청, 초등학교 독서 논술 캠프 운영



포천교육청은 독서 논술 교육을 위한 포천 북 아트 여름 캠프를 8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곡초등학교에서 실시했다.(사진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내 이름 심혈시로 부채를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

포천교육청(최길용 교육장)은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생 40명,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독서 논술 교육을 위한 포천 북 아트 여름 캠프를 8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곡초등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독서 논술하는 방법, 올바른 독서 습관 및 수준에 맞는 독서, 논술, 글쓰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함께 반을 편성하여 16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캠프 프로그램은 <부모님이 책 읽어 주기 > <북 아트 체험하기 > <내 이름 심혈시로 부채 만들기 > <동화책에 나온 인물에 대해 표현하는 연극 발표 및 밥상 차리기 > <독서 감상문 쓰기 > <일기 및 동시와 친해지기 > <생활문 쓰기 > <속담 이야기 듣기 > <우리 말 겨루기 > <전문가와 이야기하기 >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조윌레 교수와 함께 ‘가정에서 독서 논술은 어떻게 해야’라는 주제의 자유 토론과

이강산 교수와의 대화 및 즐거운 풍요 부르기로 독서 논술하는 방법을 흥미롭게 배웠다.

그리고 이번 캠프 활동들을 북 아트 미니 페스티벌로 종합하여 공개했는데 학생 및 학부모들이 조그마한 결실을 얻어 가게 되었다고 매우 만족했다.

이번에 강사로 참여한 이곡초등학교 허태강 교사는 “북 아트 캠프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의 생각을 열어주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태봉초등학교 최은옥 학부모는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들과 함께 모빌 책을 만들어 보고, 대화를 통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던 매우 좋은 행사였다”라고 평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독서 논술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흥미로운 방법으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종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18. <가정 방문>: (1) 초대(1)

* <조 언> : 상거례를 통해서 신뢰와 우정이 두터워지면, 출장 중이거나 여행 중에 있는 파트너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출국시 적당한 한국토산품 몇 개를 미리 사두는 게 좋다.

* 오늘 저녁 시간 있나요?

아유후루 투나잇?

<Are you free tonight?>

*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슈어, 왓스업?

<Sure, what's up?>

* 미안해서 어찌지요, 선약이 있는데

1) 오, 아임쏘워,

아이얼리리얼 앤어포인텐

<Oh, I'm sorry, I already have an appointment.>

2) 아임쏘워,

아이해버 프래비우스 인게이지멘

<I'm sorry, I have a previous engagement.>

3) 아이러브투고우, 버라이해버후프렌 투나잇

<I love to go, but I have a friend tonight.>

문의: 윤종성 (017-723-4977) codyoon@nate.com

여름방학 청소년 체험학습 실시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저소득가정 자녀와 함께

포천시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조도행)는 8월14일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5명과 함께하는 청소년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참여한 행사는 관내 포천반월아트홀 ‘세계가면 체험전’으로 세계 각국의 가면 한자리에 관한 후 직접 가방이나 티셔츠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도행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

어나 좀 더 넓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며 앞으로 지속적 후원의 뜻을 밝혔다. 회원 22명으로 구성된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는 15년전부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지원 등 현재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는 17일에는 가산면 자혜원 노인복지시설에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가산면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조도행)는 8월14일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5명과 함께하는 청소년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제4회 어린이 건강캠프

관내 초등교생 80명 대상

포천보건소는 어린이들의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포천시 영북면 산정 캠프에서 제4회 어린이 건강캠프를 실시했다.

포천교육청 및 초등학교(보건교사 연구회)와 연계해 80명의 관내 초등교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운동지도, 골든벨 게임, 캠프파이어, 스토리텔링 지도 등 어린이들이 생활속에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현대는 인스턴트 식품 및 식이 섭취 서구화, 컴퓨터 등 보급으로 정적인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증가로 인한 비만 및 만성 질환 발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어린이 건강캠프는 이러한 현대사회 문제점에 대한 인식확대와 어린이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교육청 직원 독서생활 운동

경기도포천교육청은 ‘6060 독서운동’(하루 60분씩 1년에 60권 책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청 내 직원들을 위한 생활 독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길용 교육장은 “학교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는 아침독서 10분 운동 및 여러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독서 생활화를 통해 교육청 직원들이 앞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대출 현황은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9권이었던 나 2007년 7월엔 43권, 8월 16일 현재 22권으로 독서에 대한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